

전국 > 충북

직지코리아 '전시 도록' 영국 대영도서관 소장 '눈길'

인진연 기자 | harrods1@hanmail.net

등록 2017-03-02 17:26:28



【청주=뉴스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열린 '2016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의 '전시도록'을 영국 대영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이 공식 소장하기로 2일 결정했다. 해미쉬 토드 대영도서관 아시아 도서 수집 총책임자가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의 기획자 '직지 금빛 씨앗' 도록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7.03.02 (사진=청주시청 제

공)

photo@newsis.com

【청주=뉴스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열린 '2016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의 '전시 도록'이 영국 대영도서관에 공식 소장돼 눈길을 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의 기획전 '직지, 금빛 씨앗' 도록이 영국 대영도서관에 공식 소장됐다고 2일 밝혔다.

영국국립도서관인 대영도서관은 1억5000만 권의 도서를 보유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다.

특히 의회민주주의 원전인 '마그나 카르타'와 세계 최고 목판 서적인 '금강경', 구텐베르크 성경 두 권 등 중요한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대영도서관의 이번 도록 소장 결정에는 페스티벌 당시 활동했던 김승민 수석 큐레이터의 역할이 컸다.

김 수석 큐레이터는 페스티벌을 마친 뒤 거주하던 영국으로 돌아가 헤미쉬 토드 대영도서관 아시아 도서 수집 총책임자와 면담해 직지의 문화사적 의미를 설명해 도록의 공식 소장 결정을 받았다.

헤미쉬 토드 대영도서관 아시아 도서 수집 총책임자는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직지 페스티벌의 전시 도록을 우리 컬렉션에 추가하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김승민 큐레이터는 "헤미쉬 토드는 직지코리아 전시 도록을 보고 좋아하며 이 도록을 개인적으로도 소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6만명이 방문했던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은 올해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상설사무국이 설치됐으며, 총 60억원을 들여 내년 2회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inphot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